

# ‘DJ 정신’ 예술로 승화시킨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대통령 광주추모사업회 제공>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건너고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인동초’가 견지했던 평화 정신이 그리워 집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특유의 리더십, 화합의 방식으로 풀어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광주추모사업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이 음악회 ‘미래를 향하여’를 오는 17일 오후 5시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펼친다.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및 서거 15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공연에 앞서 김양현(전남대 철학과 교수) 위원장은 기획 의도를 이렇게 설명했다.

1924년 전남 신안에서 태어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가택연금 등 탄압을 받았지만 민주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 재임 중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로를 인정 받아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2000년)했다.

김 전 대통령 추모영상으로 시작하는 공연은 ACC 시민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Op.39, 1번’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은 세익스피어의 ‘오셀로’ 중 3막 3장의 대사에서 제목을 차용했으며 쾌활한 멜로디로 희망의 메시지를 환기한다.

조선대 사법대 및 연세대 음대 대학원, 이탈리아

탄생 100주년 및 서거 15주기

광주추모사업회·ACC재단

17일 전남대 민주마루서 음악회

추모 영상으로 공연 시작

시민오케스트라·솔리스트양상בל 참여

DJ에창곡 ‘목포의 눈물’ 레퍼토리도

S.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나혜숙은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과 푸치니 오페라 ‘잔나 스키키’ 중 ‘라우레타의 아리아’,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등을 부른다.

‘오 나의 태양’,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등 유명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국립오페라단 ‘안드레아 셰니에’ 주역을 맡았으며 현재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테너 윤병길이 협연할 예정이다. 나혜숙·윤병길 성악가

는 함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양상בל을 들려준다.

베이스 임해철 외 10인이 활동하는 광주솔리스트양상בל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애창곡으로 알려진 손목인의 ‘목포의 눈물’,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등을 부른다.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마단조 Op.95-신세계로부터’도 레퍼토리에 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30~70대 아버지로 구성



ACC시민오케스트라가 17일 음악회 ‘미래를 향하여’에서 연주를 펼칠 예정이다. <ACC재단 제공>

된 ‘아버지합창단(지휘자 윤원중)’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창단한 ACC시민오케스트라는 86여 명 단원들이 지역 생활예술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 주도형 악단이다. 지휘는 러시아 국립 그네신음대(및 동 대학원 박사)를 졸업하고 클라리넷 오케스트라, 광주예고 지휘자, 호신대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는 김병무 지휘자가 맡

는다.

김대중대통령광주추모사업회 정진백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시련과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 민주주의를 실현시킨 위대한 지도자”라며 “지역 예술인 및 단체들이 함께 꾸리는 이번 공연은 DJ가 추구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예매(1인 4매까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설화 ‘목도령과 대홍수’ 어린이 음악극으로 만나요

ACC창제작 ‘나무의 아이’

20~24일 북구문화센터

‘목도령과 대홍수’라는 우리나라 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가족 음악극.

광주시 북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가족음악극 ‘나무의 아이’를 오는 20-24일 북구문화센터에서 펼친다. 화-금 오전 10시 30분, 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진행.

작품은 남들과 다른 특징이 있는 아빠를 지닌 한 아이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내용이다. 출연진들이 직접 곡악기를 연주하며 이야기와 음악을 풀어나가는 어린이 음악극이며, 단순하고 쉬운 언어와 라이브 연주와 연기를 겸하는 액터뮤지션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오랜 옛날 어느 마을, 커다란 나무 아래 웅크린 채 한 아이가 울고 있다. 바로 ‘나무’가 아버지라는 이유로 파들림을 당하는 나무도령이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던 외톨이 나무도령은 아빠를 위해 물을 길어다주고, 벌레를 쫓아낸다. 나무아빠는 아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가지 위에 오르게 해 높은 세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행복한 때도 잠시,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내려 세상을 집어삼킨다. 홍수로 인해 불박이 나무아빠와 외톨이 나무도령은 처음으로 안전한 곳을



가족음악극 ‘나무의 아이’ 공연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찾아 여행을 떠난다. 과연 아빠와 아들은 어느 곳에 다다르게 될까?

작품은 구도운 극작가의 시나리오에 민찬홍의 곡을 입혔으며 윤수진, 이대현, 이은지, 정현진 배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ACC창제작 어린이공연이자 북구문화센터 특별기획으로 마련됐다.

북구문화센터 문나리 홍보담당은 “전통 설화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 출연진이 직접 곡악기를 연주하는 요소 등은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의 예술, 예술의 일상화’라는 가치를 걸고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주재현 화가 30주기전 ‘재히어니, 나는 죽었다’

9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천재 요절 화가 주재현의 30주기를 추념하는 순회 전시 ‘재히어니, 나는 죽었다’가 호랑가시나무에서 9일까지 열리고 있다.

홍천 출신으로 지난 1994년 작고한 주재현은 생전 그림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작가였다. 작가 스스로 ‘화업 원년’이라 했던 1981년부터 작고한 1994년까지 어느 해도 작업을 손에서 놓지 않을 만큼 창작에 대한 열의가 깊었다.

홍천미술관은 지난 2022년 유족과 지인으로부터 2491점의 원화를 기증받았다. 이후 미술관은 소재, 주제, 기법, 양식만큼이나 다채로운 작품을 분류하고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소재 또는 주제를 다룬 시리즈를 217개로 묶었다.

홍천미술관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순회 전시는 천안의 뮤지엄호두를 비롯해 파주의 화이트블록, 서울의 관동 갤러리를 거쳐 광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미술관에 따르면 주 작가의 특징적인 화법은 작가가 혼자 그린 것보다는 여러 명이 작업을 한 것처럼 다양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



작고 전날 그린 작품(0001-94)

에 제목이 없고 분류 번호만 있다. 작품 가운데는 본인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작품, 작고 하루 전에 그렸던 그림 등도 있다.

강산 홍천미술관 학예사는 “미술관이 2022년도에 소장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재현 작가를 알게 됐다. 검토를 해본 결과 지역 미술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깊은 작가라고 판단을 했다”며 “기증을 받고 아카이빙을 하며 제대로 조명을 하고 평가를 받기 위해 전국 순회전을 개최했다. 다음주에는 부산에서 전시를 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합창부터 뮤지컬까지 전 세대 즐길 수 있는 무대 펼쳐진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하반기 공연 라인업 공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권기원·합창단)이 올해 하반기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창작 합창 공연부터 어린이 뮤지컬까지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9월 28일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4회 광주시소년소녀합창제’가 펼쳐진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행사이며 나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기톨릭평화방송, 광주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광주CBS소년소녀합창단, 광주파랑새합창단 등이 출연해 저마다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전석 5000원.

시의적인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창작뮤지컬 ‘나를 노래해’도 볼 수 있다. 11월 30일 오후 3시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며 권기원 지휘, 김성강 연출.

작품은 ‘문제야’로 낙인찍힌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극화했다. 합창단 제143회 정기공연 일환이며 진정한 의미의 ‘치유’와 ‘화합’이 무엇인지를 조망한다. (전석 1만원)

아울러 외지 공연으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창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작뮤지컬 ‘나를 노래해’를 공연하는 모습.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공>

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가 있다. 1992년 시작한 합창제는 지역 간 문화교류와 합창음악 발전을 위해 시립소년소녀합창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76년 창단 이후 총 142회 정기연주회와 1200회 연주회를 통해 지역 시민들을 만나 왔다.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해외 연주를 선보였으며 지난해부터 상임지휘자 체제로 전환,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및 정발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권기원 상임지휘자는 “합창단은 예술성과 대중성 있는 작품을 위해 매년 합창뮤지컬,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 등을 선보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아이들의 하모니가 공연장을 수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인공지능 로봇이 전시 안내해 드립니다”

ACC ‘큐레이팅봇’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이 안내하는 전시 관람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 들어서면 ‘큐레이팅봇’(큐아이)을 만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간단한 전시를 비롯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기초 정보를 알려주는 장면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지난 1일부터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는 인공지능 전시안내 로봇 ‘큐레이팅봇(이하 큐아이)’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큐아이’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을 뜻한다. ‘문화(Culture)+큐레이팅(Curating)+인공지능(AI)’의 합성어다. ‘문화정보를 큐레이팅하는 인공지능’, ‘문화정보를 큐레이팅 하는 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큐아이’의 역할은 전시안내, 문화정보 제공 등이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공간 구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해설이 가능하다. (터치 입력 방식, 음성 대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ACC는 향후 2세대 로봇에 정각장애인을 위한



‘큐아이’를 시연하는 장면. <ACC 제공>

수어 영상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강현 전당장은 “급변하는 AI시대, 전시 환경 또한 이와 맞물려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여름 방학을 맞아 ‘큐아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이 누렸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큐아이 서비스 개시 전, 지난 31일 ACC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큐아이’ 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